

# 방미통위, 美 싱클레어와 한국 콘텐츠 유통 등 논의

- 델 파크스 기술총괄사장과 면담...한국 콘텐츠 채널 및 방송기술 동향 등 설명 -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 싱클레어 방송 그룹 델 파크스(Del Parks) 기술총괄사장과 면담을 갖고 드라마·예능 등 한국 콘텐츠 유통 및 차세대 방송기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.

미국 전역에 185개 이상의 방송국을 가진 미국 지상파방송 그룹인 싱클레어 측은 이 자리에서 ▲한국 콘텐츠 채널의 전반적인 사업 구조와 추진 방향 ▲인공지능 기반 방송기술 동향 ▲차세대 방송 기술을 활용한 신규 수익 모델 등에 대해 설명했다.

특히 향후 미국 지상파 방송망을 활용해 한국 콘텐츠 공급 및 차세대 방송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확장 가능성 등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.

방미통위는 한국 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해외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, 차세대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
한편, 싱클레어 그룹은 지난 1월 에스비에스(SBS) 등과 협력해 미국 지상파 채널에 한국 콘텐츠를 공급하는 전용 채널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.

|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방송정책국    | 책임자 | 과 장 | 박경주 (02-2110-1420) |
|       | 지상파방송정책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공태호 (02-2110-1459) |